



사용하기 쉬운 드레싱 용기

Easy-to-Use Dressing Container : Adopting “Screw Cap”

小林 康子 / 큐피(주) 연구소 상품개발센터 포재팀

1. 서론

이번 봄 신발매인 드레싱 「맛이 산뜻한 드레싱」[사진 1]에서는 캡을 비틀면 중간마개가 열린다고 하는 새로운 여는 방식의 「틀어서 여는 뚜껑」을 채용하고 있다. 이 중간마개는 동관홍업(주)개발한 용기이며, 이번 폐사의 드레싱에서 처음으로 채용했다.

지금까지의 드레싱의 여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당황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되었으나, 그것을 상회하는 사용하기 편리함을 고객님들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품화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 보고한다.

1. 채용의 배경

지금까지 폐사에서는 고객들이 드레싱을 즐겨 주셨으면 했기 때문에, 맛을 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용기에 관련해서도 환경으로의 배려와 고객님들의 사용방법을 생각하여, 조금씩 개선을 계속

해 왔다. 잡기 쉬운 병의 형상과 그 경량화, 혹은 종이라벨과 쉬링크필름의 벗기기 쉬움의 개선이었다. 중간마개의 유니버설디자인화(2007년 일본패키징콘테스트 수상)도 진행해 왔으나, 폴링 타입 중간마개를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중, 동관홍업(주)와 함께 이상적인 드레싱용기의 개발에 착수하여, 지금까지의 드레싱용기의 개선점을 밝혀냈다. 몇 개인가 제안을 받는 중, 최종적으로 「틀어서 여는 뚜껑」으로써 구현화했다.

2. 제품의 여는 방법

「틀어서 여는 뚜껑」은 여는 방법에 특징이 있다. 여는 방법과 그 때의 뚜껑과 중간마개의 상태를 [그림 1]에 표시했다. 「틀어서 여는 뚜껑」에서는, 제품에 캡을 끼운 채로 오른쪽으로 돌려(잠겨있는 방향) 찰카이라고 하는 소리가 났을 때에 중간마개가 열려, 역방향으로 돌려 캡을 따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사진 1] 맛이 산뜻한 드레싱 외관



3. 「틀어서 여는 뚜껑」의 이점

지금까지의 폴링크타입의 중간마개는 개봉 시, 폴링크에 손가락을 걸기가 어려워 폴링크가 잘리거나, 액이 흘러나오는 등 일련의 동작 중에 불만이 있었다.

「틀어서 여는 뚜껑」에서는 캡을 눌러는 동작만으로 개봉의 동작을 스무스하게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점이 해소되었다.

「틀어서 여는 뚜껑」의 이점은 아래에 서술한 대로이다.

1) 누구라도 간단히 중간마개를 열 수 있다.

캡을 손으로 돌려서 중간마개를 개봉하기 위한, 손끝에서의 섬세한 작업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

2) 중간마개 개봉 시에 내용물이 튀어 나오지 않는다.

폴링크를 잡아당길 때에 스코어뒷면에 부착한 드레싱이 개봉과 동시에 튀어 올라, 손가락이나

옷에 묻어버리는 일이 있다. 「틀어서 여는 뚜껑」에서는 캡의 내측에서 개봉되기 때문에, 드레싱이 주위에 튀어 오를 일이 없다.

3)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폴링크타입에서는 식탁에서 개봉한 때에, 폴링크를 버릴 장소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틀어서 여는 뚜껑」에서는 개봉 후, 중간마개 위의 뚜껑은 캡 뒷면에 자동적으로 장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4) 위생적으로 개봉할 수 있다.

나오는 입구에 손가락이 닿지 않고 캡을 사용하여 개봉하기 때문에, 위생적이다.

5) 찰카이라고 하는 소리로 중간마개가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개봉했을 때에 「찰카」이라고 하는 소리로, 그 때까지 밀봉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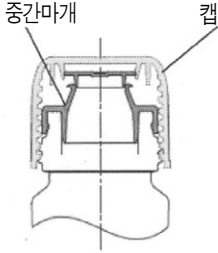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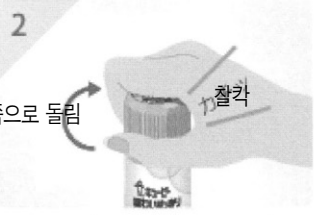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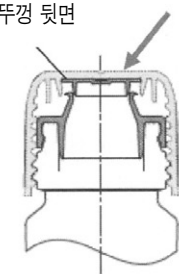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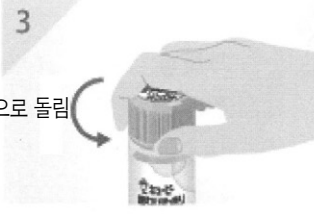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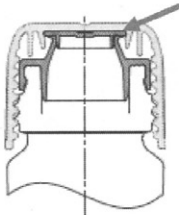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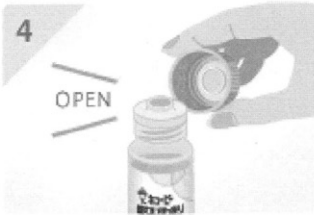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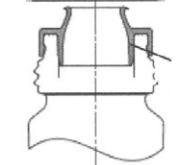
4. 사내 모니터의 검증

「틀어서 여는 뚜껑」은 외관만으로는 여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최초에 캡을 오른쪽으로 돌려 연다고 하는 동작이, 기존제품과는 전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큰 차이를 얼마나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해받을 수 있을까가 포인트이다.

제품자체에서 중간마개의 여는 방법 표시를 궁리하고, 고객님들이 스무스하게 사용하시게 할까, 사용시험을 행했다. 피험자에게는 새로운 개봉방식의 용기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드레싱을 사용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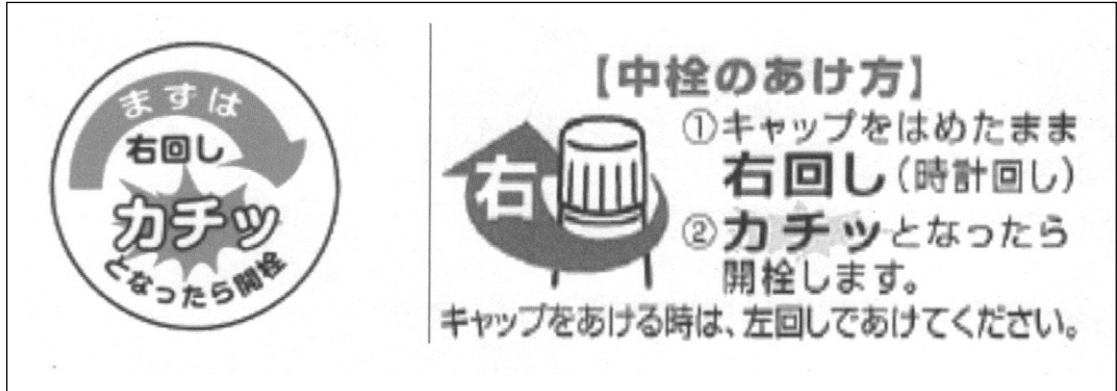
그 결과 「표시대로, 잘 개봉한 사람」(22%),

[그림 1] 「틀어서 여는 뚜껑」의 개봉방식(좌)와 중간마개의 상태(우)

<p>1</p> 	<p>중간마개 캡</p> 	<p>사용전의 상태</p>
<p>2</p>  <p>오른쪽으로 돌림 찰칵</p>	<p>뚜껑 뒷면</p> 	<p>뚜껑을 쑤셔 넣으면 중간마개의 위에마개 뒷면에 끼어 진다.</p>
<p>3</p>  <p>왼쪽으로 돌림</p>		<p>한번 더 캡을 끼우면 중간마개 스코어부가 잘려, 중간마개와 같은 것이 끼워집니다.</p>
<p>4</p>  <p>OPEN</p>	<p>중간마개의 위에 마개</p>  <p>중간마개 본체</p> 	<p>뚜껑을 왼쪽으로 돌리면 중간마개의 위에 마개는 뚜껑 뒷면에 붙게 됩니다.</p>
<p>중간마개가 뚜껑의 뒷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그림 2] 개봉방식의 설명(뚜껑의 윗부분, 제품 뒷면)



「한번 캡을 개봉, 그 후 제대로 개봉한 사람」(55%), 「중간마개의 위에마개· 중간마개를 벗겨버린 사람」(7%), 「열지 못한 채, 도움을 요청한 사람」(16%)이었다.

지금까지의 중간마개와 비교하여 틀어서 여는 뚜껑은 사용하기 쉬운가라고 질문을 한 결과, 「틀어서 여는 쪽이 사용하기 쉬움」(64%),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음」(19%), 「지금까지의 방법이 사용하기 쉬움」(17%)이었으며, 6할 이상의 사람에게 「틀어서 여는 뚜껑」의 편리성을 인정 받았다.

한번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코멘트도 있는 한편, 지금까지의 중간마개 쪽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2할 정도 있다고 하는 점으로부터, 사용에 익숙해진 형태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틀어서 여는 뚜껑」의 개봉방식이 지금까지와 다르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기존의 형태의 쪽이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틀어서 여는 캡의 개봉방식을 어디까지 고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인 것을 알았다.

그 외, 이번의 결과에서 중간마개의 위에마개를 손으로 벗겨내는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손가락으로는 간단히 벗기기 어렵도록 중간마개 스코어부에 강도를 더하고, 중간마개의 위에마개를 벗겨내어도 새지 않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했다.

5. 개봉방식의 표기

사내모니터의 결과, 개봉 전에 제일 아이 캐치하는 장소가 캡 윗부분인 것으로부터, 제일 큰 차이가 있는 캡의 돌리는 방향이 반대인 것을 표시하는 커다란 시인을 뒷면에 기록했다. 더해서, 돌리는 것에 의해 중간마개가 개봉되는 것을 이미지가 하도록 「찰칵」이라고 하는 문자도 함께 적었다.

뒷면의 표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캡을 벗겨버리는 고객님은, 뒷면에 여는 방식의 표기가 없는가를 찾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뒷면에 자세히 중간마개의 개봉방식을 표시했다.

실제의 제품에서는 표시스페이스는 제한되어

있으나, [그림 2]와 같이 개봉방식의 설명을 뒷면과 뒷면에 표시했다. 또 점두에서 개봉방식을 실연하여 설명하거나, 홈페이지 및 CM에서도 개봉방식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6. 고객들로부터의 반향

2010년 2월에 발매한 이후, 많은 고객들로부터 상담·지적을 받고 있다.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며, 판매하고 있는 가게 및 상품의 특징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나, 제품의 개봉방식에 관한 상담·지적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 내용이 많은 것이, 「중간마개의 개봉방식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없었다」(47%), 「중간마개의 위어마개가 캡 뒷면에 끼어버릴 때의 소리로 개봉한 것으로 생각하여, 캡을 돌리는 것을 중지했으나, 열리지 않았다」(38%), 「개봉방식은 표시로 이해했으나 캡의 돌리는 것이 부족하여, 개봉까지 이르지 못했다」(15%)였다. 이후 한층 더 틀어서 여는 뚜껑의 개봉방식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기 스스로 여는 것이 가능하지 못했던 고객님들에게 개봉방식을 설명하면, 바로 이해되어 간단히 여시는 것이 가능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으로부터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감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드레싱의 폴링크를 떼는 것에 힘을 쓰셨던 분으로부터는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또 아이가 있는 고객들은, 아이가 좋아하며 캡을 열었다, 어린이에게도 안심하며 열게 할 수 있다고 하며 기뻐했다. 용기를 바꾸는 것이, 가족

과의 식사를 즐기는 데에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을 실감했다.

II. 결론

지금까지의 드레싱용기에서는 다양한 점에서 고객님들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나, 「틀어서 여는 뚜껑」으로 하는 것으로, 개봉에 부수되는 불만점을 해소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드레싱용기는 전혀 새로운 개봉방식의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해주시는 고객님들은 개봉 시에 당황하셨을 것이다. 한번 개봉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이후도「틀어서 여는 뚜껑」의 개봉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몽을 계속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고객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틀어서 여는 뚜껑」을 진화시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